

# 한국 전통별서정원의 공간특성

- 한국 전남 담양지방을 중심으로 -

류씨(劉繼)\* · 김도균\*\* · 김정철\* · 유병빈\* · 이용국\* · 석연경\*\*\*

\*순천대학교 대학원 조경학과 · \*\*순천대학교 조경학과 · \*\*\*연경문화인문예술연구소

## I. 서론

정원은 대개 주택의 외부공간을 실용적·심미적 목적으로 처리한 뜰을 의미하며 주거문화의 반영일 뿐만 아니라 한 사회와 시대의 생활문화와 가치체계 및 예술이 총체적으로 결집된 장소라고 할 수 있다(두산백과, 2016). 정원의 공간구성은 조성시대, 조영자, 조영기법, 이용행태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오랜 역사를 갖는 전통정원의 조영기법을 통하여 전통정원을 복원하거나 현대 정원조성에 응용하려는 사례들이 많이 있다.

1970년대 이후 많은 전통정원을 조사·분석하거나 고찰한 사례는 많이 있지만 한국 조선시대 은거생활을 하였던 선비들의 전통별서정원에 대한 시대적 문화사상과 공간구성 그리고 이용행태의 관련성에 대한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16~17세기 전남 담양군에 소재한 한국 전통 별서정원들을 대상으로 정원구성의 유형, 내용, 기법 그리고 이용행태를 조사·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한국 전통별서정원의 문화적 의미를 파악하여 전통별서정원 관리와 복원 그리고 장차 정원조성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II.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내용은 한국전통별서정원의 공간구성, 공간의 형태, 공간의 이용행태, 시대 문화적 배경에 대하여 조사·분석하였다. 조사 대상지는 전남 담양군에 소재한 한국 전통정원인 소쇄원, 명옥헌, 환벽당, 송강정, 면양정 등 별서정원으로 하였다.

정원공간의 유형을 파악하기 위하여 세계 여러 나라의 정원

표 1. 전남지역 주요 별서정원

명칭	위치	작정자	조영시기
소쇄원	전남 담양군 남면 지곡리123	양산보	1530
명옥헌	전남 담양군 고서면 산덕리 511	오이정	1652
면양정	전남 담양군 봉산면 제월리 402	송 순	1533
환벽당	광주광역시 북구 충효동 387	임억령	1532
송강정	전남 담양군 고서면 원강리 274	오치상	1584

공간 구성기법과 이용에 관련된 자료들을 참고하였다.

정원공간의 유형을 구분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등에서 제시된 정원공간의 평면도, 단면도, 사례 투시도를 기준으로 유형화하였다.

분류된 공간유형을 기준으로 5개의 별서정원에 공간구성을 정원전문가 5명과 현지인들의 조언을 받아 현지 조사·분석하였다. 조사된 정원공간의 구성개념과 형태는 현지에서 평면도, 단면도 등으로 도면화하였다.

정원공간의 이용행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소쇄원 48명 등 정원과 관련된 시문 및 작정기 등 옛 기록을 토대로 유추하였다.

## III. 연구 결과

### 1. 정원공간구성의 요소도출

세계 여러 나라의 정원공간 구성에 대한 참고문헌을 조사·분석한 결과 시각적으로 정원을 보는 행태에 따라 보는 것과 보이는 것, 공간의 크기에 따라 주중과 중점, 공간의 대비, 공간의 표 2와 같다.

표 2. 주요 문헌 및 연구에 나타난 전통정원의 공간구성 요소

연구자	주요 구성요소	출처
彭一剛	주중과 중점, 보는 것, 고저차락, 공간의 대비, 내향과 외향, 양시와 부시, 구불구불한 곡절, 감추는 것과 나타나는 것, 인도와 암시, 소와 밀, 기복과 층차, 허와 실, 침투와 층차	時空文化 (1999)
환경부	하향경관, 상향경관, 수평경관	환경부 (2004)
진양교	이용한 공간	(1999)

### 2. 별서정원 공간유형

한국의 15~16세기 한국전통별서정원에 나타난 정원의 공간의 유형은 부시, 양시, 보는 것, 고저차락, 공간대비, 내향, 외향, 구불구불한 곡절, 형태, 선, 색, 질감, 대조, 연속성, 축, 집중, 상대성 등 조형을 나타냈다.

소쇄원의 정원구성은 주중, 중점, 고저차락, 상대성, 양시, 부시, 보이는 것 등으로 7개 유형이었다.

명옥헌의 정원구성은 고저차락, 공간대비, 양시, 부시, 보이는 것, 외향, 구불구불, 집중, 상대성, 암시, 인도, 감추는 것 등으로 12개 유형이었다.

면양정의 정원구성은 보이는 것, 양시, 부시, 고저차락, 상대성, 감추는 것 등으로 6개 유형이었다.

환벽당의 정원구성은 보이는 것, 양시, 부시, 고저차락, 내향, 외향, 집중, 상대성, 인도 등으로 9개 유형이었다.

송강정의 정원구성은 보이는 것, 양시, 부시, 고저차락, 내향, 외향, 집중, 상대성, 연속성 등으로 12개 유형이었다.

공간 유형이 가장 많은 정원은 명옥헌, 송강정이 12가지 공간의 유형이 나타났다. 가장 적은 공간유형의 정원은 면양정으로 6가지 공간 유형이 있었다.

소쇄원 등 주요 별서정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공간유형으로는 고저차락, 양시와 부시, 보이는 것과 보는 것같이 지형의 높낮이 차이와 관계되는 공간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는 한국별서정원 공간유형의 지형 변화에 따라 설게 나타났다.

표 3. 전통별서정원에 나타난 정원의 공간 유형 및 경관

구분	명옥헌	소쇄원	면양정	환벽당	송강정
보여지는 것	○	○	○	○	○
보이는 것	○	-	○	○	○
양시	○	○	○	○	○
부시	○	○	○	○	○
고저차락	○	○	○	○	○
공간대비	○	-	-	-	-
내향	-	○	-	○	○
외향	○	-	-	○	○
구불구불	○	-	-	-	○
주중과 중점	-	○	-	-	○
연속성	-	-	-	-	○
집중	○	-	-	○	○
상대성	○	○	○	○	○
암시	○	-	-	-	-
인도	○	-	-	○	○
감추는 것	○	-	○	-	○
나타나 것	-	○	-	-	-
침투	-	-	-	-	-
층차	-	-	-	-	-
퇴산 첩석	-	-	-	-	-
공간 서열	-	-	-	-	-
허	-	-	-	-	-
실	-	-	-	-	-
빈도	12	7	6	9	12

한국 조선시대의 모든 전통별서정원 공간유형 유형이 일치하지는 않지만 주로 나타나는 공간구성은 보이는 것, 고저차락, 공간대비, 내향, 외향, 구불구불한 곡절 등이었다. 이들 정원구성 유형은 중국의 전통원림에서 많이 나타나는 공간구성기법인 보이는 것, 공간의 대비 등이 많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이 16~17세기 조선시대 전통별서정원의 공간구성 기법이 다른 나라의 정원공간구성 유형들보다 단순하게 나타나는 것은 정원조영 당시의 시대상황과 조영자들이 처한 상황에 맞추어 조영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조영자들이 자연에 귀의하고자 한 자연합일사상에 근간을 둔 사립들(이현우, 2012)로서 정원조성 목적이 정신수양, 학문 등이었기 때문에 정원조성을 과시형으로 거대하거나 전시형으로 화려하지 않게 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정원조영지를 인위적으로 개변하지 않아도 될 만큼 경관이 수려한 위치에 정원을 조영하여 자연과 지형을 인위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최소화되었기 때문에 인위적인 공간구성 기법이 다양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 대상지의 정원들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공간구성 유형으로는 인도(引導)와 감추는 것(藏)의 공간구성 기법이었다.

주공간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좁고 굴곡지고, 경사진 집입 통로로 인도되며, 주정원 공간이 외부에서 직접적으로 보여지는 것보다는 감추어지(藏)는 공간체험기법을 주로 적용하였다. 이런 기법은 공간의 대비와 관계되며, 주로 진입부-초입부로 연결되는 진입부는 좁은 길 형태이나 초입부에 들어서면 넓은 마당, 연못 등이 대비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정원 각 공간에서 주 이용행태는 정신수양, 완상(觀賞), 문학, 만남, 기다림, 사유 등이었다.

소쇄원 48명 시에 나타난 정원의 이용행태를 유추한 결과 1단(1~12명)은 서이고 2단(13~24명)과 3단(25~36명)은 소쇄원 경에서 한가로이 자연을 즐기고 관조하는 정경을 그렸다(천득염, 1999). 명옥헌, 면양정, 환벽당, 송강정은 고저차가 큰 지형으로 주로 아래를 내려다보는 고저차락의 공간기법이 적용됨에 따라 자연과 주변 경관을 관조하고 사색하고 문학을 음미하는 완상 및 사유의 행태가 주된 활동으로 분석되었다.

#### IV. 결론

한국의 15~16세기 전통별서정원의 조영자와 주이용자는 선비들이었다. 선비들은 복잡하게 인공적으로 조성한 경관보다는 시대상황과 조영자 자신들의 상황에 맞추어 자연 상태의 경관을 그대로 두거나 조금 변형시켜 공간을 조성하였다. 정원 조성 공간이 평지가 아니고, 기복이 있는 산자락에 조성하였으며, 자연의 지형지물을 잘 이용하였다. 구불구불한 것은 자연지형을 그대로 이용한 것이다. 주요 이용행태는 지형의 고저차락, 시각적으로 양시, 부시 등이었다.

## 1.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를 통하여 정원의 조영과 공간구성은 시대의 정치, 문화, 이용행태, 설계 스타일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전통정원을 복원하거나 고찰할 때에는 단순히 시각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역사, 문화, 입지 등을 함께 파악하여야 함을 시사하였다.

## 2. 향후 연구

본 연구는 시각적 공간구성과 이용행태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향후 이들 정원이 정신문화적 차원에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조영되고 이용되었는지에 대하여 연구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1. 이용범, 천득엽, 임영배(1994) 경(景)으로 본 정자건축의 장소성에 관한 연구: 무등산 권역의 정자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0(6): 89-99.
2. 이재근, 김용기(1992) 조선시대 정자원림(亭子園林)의 지역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10(1): 15-31.
3. 천득엽(1999) 한국의 명원 소재원. 도서출판 발언.
4. 彭一剛(1999) 중국전통원림분석. 時空文化. p.127.
5. 彭朋(2007) 天人合一道法自然. 探析古典造園藝術的蘊涵的哲學思想和文化精神及其對現代設計的啓示(《藝術與設計(理論)》1: 52-54.
6. 查妮雪(2008) 淺析中國古典園林意境-以拙政園爲例. 석사학위논문.
7. [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_method=view&MAS\\_IDX=101013000858951](http://www.doopedia.co.kr/doopedia/master/master.do?__method=view&MAS_IDX=101013000858951)